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복녘말

■ 겨레말이 만난 사람

중국 연길인민방송국 아리랑방송
‘바로 쓰는 우리말’ 이재준 프로듀서

우리는 우리말을 매일 사용하면서도 정작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잘하지 않는다. 중국 연길인민방송국 아리랑방송에서 매주 주말 저녁마다 <바로 쓰는 우리말>이 방송되고 있다. 멀리 연변에서 잘못된 우리말을 바로잡는데 힘쓰고 있는 우리말 지킴이 이재준 프로듀서를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았다.

<바로 쓰는 우리말>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우리말을 바로 잡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중국 연길인민방송국 아리랑 방송에서 <바로 쓰는 우리말>을 제작하고 직접 진행까지 하고 계신데요, 우선 라디오 방송국인 ‘연길인민방송국 아리랑 방송’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길인민방송국과 아리랑방송을 두 개의 방송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연길인민방송국 아리랑방송’입니다. 2001년에 첫 전파를 발사한 아리랑방송은 중국내 우리말 방송에서 하루 방송 시간이 가장 긴 방송국으로 매일 20시간씩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연길을 비롯한 용정, 도문 등이 가청지역입니다.

지난 3월부터 방송된 <바로 쓰는 우리말>이 연변지역 우리 동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바로 쓰는 우리말>은 매주 주말에 2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프로는 ‘우리말 겨루기’로 총 3단계로 나눠 저와 홍상은씨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말 OX퀴즈, 2단계는 우리말 낱말퀴즈, 마지막 3단계는 우리말 속담 퀴즈로 도전자 두 분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우리말 배우기’로 총 4개의 코너로 구성됩니다. ‘바로 쓰자! 생활 속 우리말’, ‘이야기로 만나보는 우리말 속담’, ‘사전 속에 자고 있는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문학’의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코너 중에 ‘아름다운 우리문학’이 눈에 띄는데요, 언뜻 보기에 ‘바로 쓰는 우리말’의 다른 코너와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문학’ 취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퍼즐도 완성해야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우리말이라 할지라도 낱말 하나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문학’은 우리말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문학작품을 소개하며 작가들의 문학적 정서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소박한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우리말 배우기’ 코너인 ‘바로 쓰자! 생활 속 우리말’, ‘사전 속에 자고 있는 우리말’ 등에 소개되었던 ‘우리말’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을 소개한 것 중에 몇 개의 예를 들어 보면 우선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본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표현은 ‘본따다’가 아니라 ‘본뜨다’입니다.

어떤 물건을 액체에 담가 맛이나 빛깔 따위의 성질이 액체 속으로 빠져나오게 할 때 타동사 ‘우리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동사 ‘우리다’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사 ‘우리다가’ 있는 데요.

“질은 구름 속에서 달빛이 우려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자동사 ‘우리다’는 ‘더운 별이 들거나 달빛이나 햇빛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정답을 맞추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맞추다가 아니라 ‘정답을 맞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흡연을 삼가해주세요.”처럼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바로 쓰는 우리말>은 이런 말들을 찾아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전 속에 자고 있는 우리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나브로’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라고 오인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어휘가 ‘예끼다’인데요, ‘노래나 말 따위를 열에서 거들어 잘 어울리게 함’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마음에 차지 않아 시들하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사용하는 ‘시쁘다’도 평소애 자주 사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비속어나 은어 확산이 예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심한 것 같네요. 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바로 쓰는 우리말> 프로그램은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을 정확한 표현으로 바로잡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늘 사용하는 우리말이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외래어와 은어, 비속어들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비속어나 은어 확산이 예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심한 것 같네요. 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또한 외래어 사용을 보면 연변의 가게이름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도 외래어를 사용하면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연변은 남과 북의 언어가 뒤섞여있는 곳이라 사투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쓰는 우리말>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우리말을 바로 잡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연변지역은 남과 북의 언어가 뒤섞여 있는 곳이라 사투리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나 연변에서만 사용하는 어휘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투리에 대해 소개하면 “어제 가시집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시집’은 서울말로 ‘처가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군속한데 하지 마세요.”에서 ‘군속하다’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겁니다. 연변에서 ‘군속하다’는 ‘복잡하다’는 뜻으로 주위환경이 너무 떠들썩할 때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오늘 비가 와늘 많이 왔다.”에서 ‘와늘’은 서울말로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연변 말에서는 호주머니를 ‘거르마이’, 거위를 ‘게사이’, 힘에 겹다를 ‘아름차다’, 똥똥하다를 ‘실하다’, 성냥을 ‘비시깨’라 부르는 등 수많은 연변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고 바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른 활동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시오. 이와 관련해 남측이나 북측과 직간접적인 교류나 협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말을 지키고 바로 쓰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방송&감동 교육단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말 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마나운서와 PD 등 방송미디어직을 가르치는 사회교육기관입니다.

아직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없지만 이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하려면 우리말에 관한 연구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저허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국립국어원, KBS한국어연구회,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같은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변 말에서는 호주머니를 ‘거르마이’, 거위를 ‘게사이’,
‘힘에 겹다’를 ‘아름차다’, 똥똥하다를 ‘실하다’, 성냥을 ‘비시깨’라 부르는 등
수많은 연변사투리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변화를 연길의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전파되면서 연변사람들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그콘서트에서 재미있는 ‘신조어’가 생겨나면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츰* 따라하는 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자 애쓰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반응 또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우리말 사용에 끼치는 한류의 영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연변에서 우리 동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고유어 말(사투리, 토속어 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투리와 토속어가 어느 한 특정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준다 해도 과연 이만할 것 같은데요,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어 온 연변 고유어 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편이 썩 달갑지않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마냥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사투리와 토속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언어,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을 지키는 초석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연변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아리랑방송 외에도 우리말 방송국, 우리말 언론사(신문사)나 출판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변 지역에 우리말 방송국, 언론사, 출판사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변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말 방송은 제가 예전에 몸 담았던 <연변인민방송국>과 <연변 TV>입니다. 그 외에도 연변일보, 길림일보, 연변교육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등 수많은 우리말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 길림신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 나타난 제반 최신 성과와 뉴스, 정보, 지식을 적시적으로 담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관광, 스포츠 등 독자들의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면서 특히 200만 중국 조선족들의 생활현상과 관련 뉴스를 주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언론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신문을 개척하고 중국 전 지역과 한국, 조선, 일본, 미국, 등 아시아주, 구라파주, 북아메리카주의 민족사회에서 중국 조선족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변교육출판사는 1947년 설립된 곳으로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독점 출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종, 4억여 권을 출판했고, 직원도 130명에 달해 중국 전체 출판사 규모로도 50위 안에 듭니다. 중국내 조선족 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조선어문 교과서는 직접 편찬하고, 수학·과학·물리 등 나머지 과목 교과서는 중국 교과서를 조선어로 번역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라디오 ‘바로 쓰는 우리말’의 진행자 홍상은, 프로듀서 겸 진행자 이재준 씨(왼쪽부터)

끝으로 <바로 쓰는 우리말> 프로그램이 언제 어떻게 방송되고 있으며, 연길 이외의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쓰는 우리말>은 매주 토,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방송되고 있으며, 연변지역에서는 FM88.0에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쓰는 우리말> 팟캐스트, 중국내 조선족 젊은이들을 위한 스마트라디오 ‘CBS포워라디오’ 앱을 통해 해외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이 남과 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좋은 길라잡이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화와 대립을 반복하는 긴장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레말큰사전》이 승승장구하시고 우리말 대표사전으로 자리매김하시길 소원합니다.

* ‘이내’의 절경남도 방언(편집자 주)

■ 우리말 돋보기

잎순가락과 간자순가락

· 박일환 / 개웅중학교 국어 교사, 시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가 발달했다. 서양에서는 주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데, 이는 음식문화가 다른 데서 온 것이므로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못 된다. 문제는 우리말을 써도 되는데 굳이 외국말을 쓰는 데서 생긴다. 숟가락을 스푼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습관이다. 특히 찻숟가락은 티스푼이라는 외국말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숟가락의 종류를 나타내는 다양한 우리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숟가락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쇠붙이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쇠숟가락’과 ‘쇠숟가락’만 표제어로 올라 있을 뿐 ‘나무숟가락’은 올라 있지 않다. 반면에 ‘나무젓가락’과 ‘대젓가락’은 표제어 대접을 받고 있다. 아마도 실생활에서 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나무로 만든 젓가락은 그보다 많이 사용해서 그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는데, 합리성을 띤 대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숟가락의 모양이나 쓰임새에 따라 달리 부르는 이름들도 있다. 우선 ‘잎순가락’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사전에는 ‘얇고 거칠게 만든 숟가락’이라는 풀이를 달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붙은 ‘잎’은 나뭇잎을 가리키는 걸까? 언뜻 생각하면 나뭇잎처럼 얇게 만든 숟가락이라는 뜻으로 만든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성냥의 한 가지. 얇은 소나무 개비의 한끝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그 끝에 유황을 묻혀서 불에 대어 불이 옮겨 붙게 한다.’라는 뜻을 지닌 ‘잎성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잎’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 흔히 돈이나 가마니, 명석 따위를 셀 때 쓴다.’라는 풀이가 나온다. 그러므로 단순히 판단할 일은 아니며, 잎순가락은 ‘잎+숟가락’에서 왔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물론 ‘잎’이 나뭇잎의 ‘잎’에서 왔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잎’이 먼저 생겨서 쓰이다가 나무와 결합했을 수도 있다.

‘잎순가락’이 있다면 그와 반대의 뜻을 지닌 낱말이 있으리란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간자순가락’이 이에 해당하는 말인데, ‘곱고 두껍게 만든 숟가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줄여서 ‘간자’라고도 부르며, 줄여서 말할 때는 ‘어른의 숟가락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하나 더 붙는다.

이밖에도 ‘끝이 다 닳아서 무디어진 숟가락’을 ‘모지랑숟가락’ 혹은 ‘몽당숟가락’이라고 하며, 북한 사전에는 같은 뜻을 지닌 말로 ‘왜지숟가락’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반해 숟가락이 다 닳지는 않고 ‘한 쪽이 닳아진 숟가락’은 ‘머석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쪽박처럼 생긴 숟가락’을 일러 ‘쪽술’이라고 하며, 주로 어린아이들이 쓰는 숟가락으로 ‘자루의 끝에 동글납작한 쪽지가 달린 작은 숟가락’은 ‘쪽지숟가락’이라고 한다. 특별히 ‘저녁밥을 먹는 숟가락’을 ‘저녁술’이라고 하는데, ‘아침술’이나 ‘점심술’ 같은 말은 없다.

마지막으로 숟가락의 구성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을 알아보자. 숟가락의 자루 부분은 ‘숟가락총’이라고 하며, 숟가락 자루와 뜨는 부분이 이어진 곳은 ‘술목’이라고 한다. 북한의 사전에서는 음식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숟가락 부분을 ‘술잎’, 술잎의 오목한 부분을 ‘술바닥’, 그 뒷부분을 ‘술등’이라고 하며, 술잎의 아래쪽 끝을 ‘술끝’, 둥그런 가장자리를 ‘술날’이라고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는 우리말 보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자들이 간혹 술자리에서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으로 잡는 부분이 바로 숟가락총이다. “김 과장이 숟가락총을 거머쥐고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쓰인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남녘말 북녘말

한자음에서의 남북의 차이

_ 고대영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우리말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는 비단 남에서만의 특징이라고 하기 어렵다. 언어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쳤던 북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은 남에 못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남북에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지만 그 음과 표기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알다시피 한자는 표의문자이기에 하나의 글자가 두 개 이상의 소리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남북의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간략하게나마 남과 북에서 동일한 한자어가 달리 읽히는 경우를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통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한자음에서의 남북의 차이

원어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비고
改悛	개전	개준, 개전 =개준.	悛: 고칠 전, 공손한 모양 순, 준개(悛改) =개준, 남에서는 안 쓰임.
開剃	개체	개제	剃: 머리 깎을 체.
醜出	각출	거출	醜: 추럼할 각, 추럼할 거
煅淬	단취	딘쇄	淬: 담금질할 취, 흐를 줄
滿喫	만깍	만긱	喫: 먹을 깍
軋轢	알력	알릭	轢: 칠 역
誤謬	오류	오유	謬: 그르칠 류(유)
歪曲	왜곡	외곡	曲: 기울 왜, 기울 외
怨讐	원수	원쑤	讐: 원수 수
-重	-중	-중	重: 무거울 중
滲漈	준설	준첩	漈: 파낼 설, 물결 일렁이는 모양 접, 데 칠 잡
推敲	퇴고	추고	推: 밀 추, 밀 퇴
萃卦	취괘	수괘	萃: 모일 취(줄), 풀이성한 모양 죄, 결 들일 채
瓣	판	판	瓣: 외씨 판
標識	표지	표식	識: 적을 지, 알 식
肛門	항문	홀문, 홍문 =항문.	肛: 항문 항, 항문 홀
戶樞	호추	호취	樞: 지도리 추, 나무 이름 우
休憩	휴게	휴계	憩: 쉴 계
開門	폐문	폐문	開: 닫을 폐
廢車	폐차	폐차	廢: 폐할 폐, 버릴 폐

위의 표에서 동일한 한자어를 남과 북에서 각각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보였다. 그리고 비교란에는 남의 자전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가 되는 한자의 음 등을 보였다. 이 표를 통해 살펴보면 남북 한자어의 표기 차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자어 표기의 차이가 한자의 속성 때문에 발생한 경우로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醜出, 歪曲, 推敲, 標識, 肛門'인데 '醜, 歪, 推, 識, 肛'은 각각 두 개의 음으로 읽을 수 있다. 남과 북에서 이 한자들을 각기 다른 음으로 읽고 있어서 한자어의 표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둘째, 표기 차이가 나는 한자가 대체로 하나의 음으로만 읽히는 경우이거나 두 개 이상의 음으로 읽히더라도 북의 음으로는 읽히지 않는 경우이다. 앞서의 경우와 달리 남과 북에서 한자의 독음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는 특정 한자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은 탓으로 보인다.

다만 '開門, 廢車' 등은 <조선말규범집(1986)>에서 그 표기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다.

제26항 한자말에서 모음 <ㅞ>가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

예: 계산, 계획, 례의, 실례, 세계, 혜택, 연예, 은혜, 예술, 예지, 예약

그러나 그 본래소리가 <계>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예: 게시판, 게재, 계양대

이에 따라 한자어에서 '계, 례, 혜, 예'를 제외하고는 'ㅞ'가 이중모음으로 소리 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폐문, 폐차'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 뜻풀이 깊고 더하기

매운맛

_ 남초록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육미(六味)>는 쓰고, 달고, 짠고, 싱겁고, 시고, 매운 여섯 가지 맛을 이르는 말이다. 기존 국어사전에서는 이들 여섯 가지 맛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육미>와 <육미>에 속하는 올림말의 뜻풀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육미: 쓰고, 달고, 짠고, 싱겁고, 시고, 매운 여섯 가지 맛. 온갖 맛을 이른다.

가. 쓴맛: ① 소태나 씬바귀 따위의 맛처럼 느껴지는 맛.

나. 단맛: 설탕, 꿀 따위의 당분이 있는 것에서 느끼는 맛.

다. 짠맛: 소금과 같은 맛.

라. 신맛: 식초와 같은 맛.

마. 매운맛: ① 구강 점막을 자극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알알한 맛.¹⁾

위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 <육미>의 뜻풀이에 제시된 부가설명은 적절한 것인가?
- (가~마)의 유개념어 '맛'의 수식 표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가~마)의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는 쓰고, 달고, 짠고, 시고, 매운 각각의 맛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를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 (마)의 뜻풀이에 쓰인 구강, 점막의 어휘는 고유어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문장 전체를 다른 형식의 표현으로 바꿀 것인가?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일정한 문장 형식으로 다듬거나 새롭게 정리할 때에는 군더더기 표현은 지우고 모자라는 표현은 더해야 한다. 올림말보다 그 뜻풀이가 오히려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알기 쉽게 풀이해야 한다. <육미>의 뜻풀이에 제시된 부가설명은 핵심 정보의 이해를 돕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매운맛>의 뜻풀이는 계열 관계에 있는 다른 어휘의 뜻풀이보다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전 <맛>의 뜻풀이에 힘입어 문장 형식을 <~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으로 정한 다음 이를 적용하여 뜻풀이를 고쳐 보았다.

맛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에 느끼는 감각. 《표준국어대사전》

맛 음식 따위가 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 《고려대 한국어사전》

○ 고친 뜻풀이

육미: 여섯 가지 맛. 쓴맛, 단맛, 짠맛, 싱거운 맛, 신맛, 매운맛을 이른다.

가. 쓴맛: ① 한약이나 씬바귀 등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나. 단맛: 설탕이나 꿀 등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다. 짠맛: 소금이나 간장 등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라. 신맛: 식초나 설익은 살구 등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마. 매운맛: ① 고추나 겨자 등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그렇다면 싱거운 맛은 무엇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일까? 만약 《겨레말큰사전》에 싱거운 맛이 새어휘로 수록된다면 <싱거운맛>은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새어휘 또한 기존 사전의 뜻풀이에 힘입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어휘 뜻풀이 역시 기존 관련어와의 균형성, 체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고친 뜻풀이를 <싱거운맛>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뜻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싱거운맛 [싱거운말] [명]

간이 덜 된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1) 여섯 가지 맛 가운데 하나인 싱거운 맛은 기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